

## 부모양육행동, 아동의 우울 및 자기효능감과 아동의 문제해결력 간의 구조모델

Parenting Behavior, Children's Depression, Self Efficacy, and Problem Solving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김원경(Wonkyung Kim)<sup>1)</sup>

권희경(Heekyoung Kwon)<sup>2)</sup>

전제아(Jae Ah Jeon)<sup>3)</sup>

### ABSTRACT

The present study examined predictors of children's problem solving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Participants were 410 dyads of 2nd- and 6th-grade children and their mother or father. Children and their parents responded to questionnaires. Instruments were the PSI(Parent Behavior Inventory, 1998), CES-D(Center for Epidemiological Scale-Depression, for children's depression, 1977) Sherer's (1982) self-efficacy scale, and the Problem Solving Inventory(Heppner & Petersen, 1982). In both grades, warmth in parenting behavior affected children's self-efficacy, which in turn contributed to their problem solving. Rejection in parenting behavior had positive effects on problem solving through increasing self-efficacy in 2nd graders only. Results implied importance of self-efficacy and developmentally appropriate parenting to improve children's problem solving.

**Key Words** : 문제해결력(problem-solving), 부모의 양육행동(parenting behavior), 자기효능감(self-efficacy), 우울감(depression), 구조방정식 모형(SEM).

### I. 서론

아동의 문제해결력은 인지적 변인과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밖에 사회적, 정서적, 환경적 변인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Coleman, 2003; Erwin, Purves, & Johannes,

<sup>1)</sup> 한국디지털대학교 청소년학과 조교수

<sup>2)</sup> 건국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

<sup>3)</sup> 건국대학교 강사

**Corresponding Author** : Heekyoung Kwon,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Konkuk University, Chungju 380-701, Korea  
E-mail : bluechess@kku.ac.kr

2005; Fawcett & Garton, 2005; Gredlein & Bjorklund, 2005; Miller, Murry, & Brody, 2005). 선행연구에 따르면, 문제해결 능력의 방식이나 전략방법 등을 인지적으로 규명해 볼 수 있는가 하면(이은혜 · 조성연, 1987; Berg, 1989; Cary & Carlson, 2001; Chen, 1999), 정서발달 및 사회성 발달이 문제해결력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연구의 흐름이 있다(Fargot & Guavain, 1997; Moss, Gosselin, Parent, Rousseau & Dumont, 1997). 이처럼 다각적인 연구 경향은 문제해결력이 인지적, 사회적, 정서적, 환경적 요인들을 통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수행과정 전체로 살펴보아야 함을 시사한다.

특히, 아동기의 문제 해결력을 포함한 인지적 활동이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발달한다는 연구는 아동 발달에 있어서 부모의 양육행동이 지닌 환경적 영향력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 준다(Rogoff, 1990; Fargot & Guavain, 1997; Rueter & Conger, 1998). 문제해결 과정에서 부모와 안정된 애착을 형성한 유아들은 불안정한 유아들보다 좀 더 책임감을 갖고 과제에 참여했으며, 상위 인지적 전략을 많이 사용하였다는 Moss 등의 연구(1993, 1997)는 부모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심리적 특성을 통해 문제해결력에 이르는 간접적 관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Alloy와 동료들(2001)은 부모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우울감에 대한 위험 요소로 작용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지적하고 있으며 또한 우울과 같은 부정적 정서도 문제해결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Alloy, Abramson, Tashman, Berrebbi, Hogan, Whitehouse, Crossfield, & Morocco, 2001; Irvin, Biglan, Smolkowski, Metzler, & Ary, 1999; Rueter & Conger, 1998; Moss, Parent, Gosselin, & Dumont, 1993; Moss, Gosselin, Parent, Rousseau, & Dumont, 1997). 구체적으로, Alloy 등(2001)은

온정 · 수용적 양육 행동을 보이는 부모의 아동이 부정적 양육 행동을 보이는 부모의 아동에 비해 우울발생의 위험률이 훨씬 낮았다고 밝혔다. 거부 · 제재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우울 발생 위험을 높이는 것뿐 아니라 아동의 행동에 대해 부정적 피드백(feedback)을 제공해 주는 것을 통해 아동이 부정적 인지 양식을 형성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부모의 양육행동은 아동의 정서 및 심리적 특성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아동의 사고 유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어서 아동의 우울과 문제해결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부모의 양육행동임을 알 수 있다.

우울 이외에도 부모의 양육행동은 자녀의 심리적 변인인 자기효능감 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기도 하다. 남미의 칠레와 에쿠아도르 청소년 연구는 청소년기 자기효능감과 성취감에 미치는 부모 양육행동의 중요성을 밝히고 있다(Ingoldsby, Schvaneveldt, Supple, & Bush, 2003). 즉, 온정적이며 긍정적인 태도로 자녀를 수용하고 감독, 관찰하는 부모 양육 행동은 청소년의 자기효능감과 성취감을 예언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주었다. 또한, 부모가 처벌과 통제를 많이 하는 것으로 지각되는 부모 양육 행동은 청소년의 자기효능감 및 성취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양육 행동이 자녀의 자기효능감에 매우 중요한 영향력을 갖는 요인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처럼 부모의 양육행동은 정서적 상태와 자기 효능감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일뿐만 아니라, 이러한 영향은 아동 발달 전반에 걸쳐 중요한 것이라 점도 밝혀진 바 있다(Shaffer, 2000; van den Boom, 1995). 주목할 점은 부모의 부정적 양육행동이 청소년의 부적응행동과 관련을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한편, 그 관련

성이 청소년초기와 청소년후기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점이다(Feinberg, Hetherington, Howe, Reiss, 2000). 또한, 부모양육행동과 청소년 문제 행동이 청소년의 자기통제를 매개로 할 때 아동기후기와 청소년초기에 따라 차이가 있음이 보고되기도 하였다(Finkenauer, Engels, Baumeister; 2005). 이러한 결과는 부모양육행동이 자녀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이 자녀의 연령에 따라 다른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아동의 우울감과 같은 정서 상태 역시 문제해결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구체적으로, 아동이 긍정적 정서 상태인 경우에는 문제해결과제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형성되어 문제해결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문제해결을 쉽게 할 수 있게 된다. 반면, 우울감과 같은 부정적 정서 상태는 문제해결과제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문제해결을 저해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Elliot, Sherwin, Harkins, & Marmarosh, 1995). 따라서 아동의 우울이 부모의 양육행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임을 보여주는 선행연구를 고려하였을 때, 우울은 부모의 양육행동을 통해 문제해결력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적 관련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문제해결력을 예측할 수 있는 변인임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Pajares와 Miller(1994)는 문제해결력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 중에서 자기효능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아동의 자기효능감, 성별, 문제에 대한 선행경험, 자아 개념, 문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등의 변인이 문제해결력에 대한 영향력의 정도를 분석한 결과 자기효능감이 문제해결력을 예언하는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Bong(1997)은 고등학생의 학업에 관한 문제해결력 연구를 통하여,

자기효능감은 수학, 화학, 역사, 언어 등의 과목의 내용을 초월하여 전반적으로 문제해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규명하였다.

이상의 연구들을 종합하면, 아동의 문제해결력은 아동 개인의 정서적 상태나 자기 효능감 등 심리적 변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러한 아동의 심리적 변인은 또한 부모 양육행동과 높은 상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변인들이 문제해결력에 미치는 직접적, 간접적 영향력은 경로분석을 통해 밝혀진 바 있다(김원경·권희경·전제아, 2001). 그러나 이러한 영향력의 경로가 아동의 연령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검증한 연구는 거의 보고 되지 않고 있다. 연령에 따라 정서적 상태, 자기 효능감 등에 대한 부모 양육행동의 영향력이 차이가 있다는 점은 선행연구에서 지적되었고, 따라서 이러한 심리적 특성이 문제해결력에 미치는 영향력 또한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양육행동이 심리적 특성을 거쳐 문제해결력에 이르는 경로가 연령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가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선행 연구들에 근거하여 부모의 양육행동이 아동 개인의 심리적 변인에 영향을 미쳐 이것이 아동의 문제해결력에 이르는 이론적 모형을 설정하고 이 변인들 간의 경로를 연령별로 비교하여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즉, 아동의 연령을 저학년 집단과 고학년 집단으로 나눈 후, 각 집단에서 문제해결력을 예언하는 변인들 간의 관계 구조가 연령에 따라 어떻게 다른가를 확인하는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부모의 양육행동, 아동의 심리적 변인, 문제해결력을 포함한 구조방정식 모델(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을 통해서 관련 변인들 간의 상호관계 구조가 연령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를 탐색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이상에서 제기된 연구 목적에 따라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아동의 문제해결력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양육행동 및 아동의 심리적 요인의 경로는 저학년과 고학년에 있어서 어떠한 구조를 보이는가?

<연구문제 2> 부모의 양육행동, 아동의 우울 및 자기효능감이 문제해결력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는 저학년과 고학년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경북 소재 3개 도시에 위치한 5개 초등학교를 임의 표집하여 이들 학교에 재학 중인 2학년 197명(48%)과 6학년 213명(52%)의 총 410명의 초등학생 및 그들의 부모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 아동의 성별은 남학생 217명(52.9%), 여학생 193명(47.1%)의 분포를 보였다. 연구대상자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조사한 결과, 아동의 출생 순위가 첫째인 경우가 177명(43.2%)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둘째 157명(38.3%), 외동 39명(9.5%)의 순이었다. 부모 응답자는 어머니가 296명(72.2%), 아버지가 110명(26.8%)의 분포를 보였다. 부모의 교육 수준을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경우는 고등학교 졸업이 222명(54.1%)으로 가장 많았고, 대학 졸업 96명(23.4%), 전문대 졸업 34명(8.3%)이었다. 아버지의 교육 수준은 고등학교 졸업 160명(39%), 대학 졸업 126명(30.7%), 전문대 졸업 43명(10.5%)의 분포를 보였다.

## 2. 연구도구

### 1) 부모양육행동

어주경(1998)의 '부모용 양육행동 척도'를 사용하여 부모의 양육행동을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온정·수용적 행동을 측정하는 15문항, 거부·제재적 행동을 측정하는 11문항, 허용·방임적 행동을 측정하는 12문항의 총 3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온정·수용적 행동 측정 문항의 예로는 '아이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보고 칭찬을 해 준다', '여가 시간을 아이와 함께 보내는 것을 좋아한다' 등이 있다. 거부·제재적 행동 측정 문항의 예로는 '아이가 조금만 잘못을 해도 금방 화를 낼 때가 있다', '아이에 대한 나의 불만을 자주 나타내는 편이다' 등이 있다. 허용·방임적 행동 측정 문항의 예로는 '어떤 것이든 아이가 싫다고 하면 그만두라고 한다', '아이가 하고 싶다고 하면 거의 무엇이든지 다 하게 해 준다' 등이 있다. 부모가 자녀에 대해 가지고 있는 평소의 태도와 행동을 생각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아주 그렇다'(4점)까지의 4점 척도 상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개인이 취할 수 있는 총점의 범위는 온정·수용적 행동은 15-60점, 거부·제재적 행동이 11-40점, 허용·방임적 행동이 12-48점이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각 행동별로 어머니가 그러한 행동을 많이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각 문항에 대한 신뢰도(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온정·수용적 행동이 .86, 거부·제재적 행동이 .77, 허용·방임적 행동이 .73이었다.

### 2) 우울감

아동의 우울감은 Radloff(1977)의 CES-D(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Depression Scale)를 번역,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나는 모든 일이 너무

나 힘들게 느껴졌다’, ‘사람들은 내게 친절하게 대해주지 않았다’ 등의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응답은 ‘한 번도 없었다’(0점)에서 ‘거의 매일 그렇다’(3점)까지의 4점 평정 척도로 측정되며, 긍정적 정서를 측정하는 문항은 그 점수를 역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감을 많이 경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 사용된 총 20개 문항에 대한 내적합치도 계수 Cronbach's  $\alpha$ 는 .89였다.

### 3) 자기효능감

Sherer 등(1982)이 개발한 자기효능감 척도를 번역, 수정한 척도를 이용하여 아동의 자기효능감을 측정하였다. 총 23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나는 하기 싫은 일이 있어도 그 일을 끝낼 때까지 끈기 있게 노력 한다’, ‘나는 계획을 세울 때 그 일을 잘 지킬 자신이 있다’와 같은 문항에 대해 아동 자신이 느끼는 정도를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부터 ‘항상 그렇다’(7점)까지의 7점 평정 척도 상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개인의 점수 범위는 23-161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 사용한 총 23개의 문항에 대한 내적일치도 계수 Cronbach's  $\alpha$ 는 .84였다.

### 4) 문제해결력

아동의 문제해결력은 Heppner와 Petersen(1982)이 제작한 도구를 번역,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총 32문항으로 구성된 원래의 척도를 기초로 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결과를 토대로 하여 16문항만을 선정하여 사용하였다. 척도는 ‘나는 문제가 생기면 가능한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생각날 때까지 최대한 궁리한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해결하는 편이다’와 같이 아동이 여러 가지 문제 상황에 직면하였을 때 ‘전혀 그렇지 않

다’(1점)에서 ‘거의 항상 그렇다’(6점)까지의 6점 척도 상에 응답하게 하였다. 개인이 취할 수 있는 총점의 범위는 16-96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효율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의미한다. 총 16문항에 대한 내적합치도 계수 Cronbach's  $\alpha$ 는 .86이었다.

## 3. 연구절차 및 자료분석

경북 소재의 5개 초등학교를 임의로 선정하고, 선정된 학교장의 동의를 얻어 2학년과 6학년 생 4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아동용 질문지는 담임교사를 통하여 배분하여 아동이 직접 작성하게 하였으며, 아동의 우울감, 자기효능감, 문제해결력의 변인을 측정하였으며, 질문지 작성을 위해 총 3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부모용 질문지는 아동을 통하여 부모에게 전달하여 응답하게 한 후 아동을 통하여 회수하였으며, 내용은 사회인구학적 배경에 관한 질문과 부모의 자녀 양육 행동을 측정하는 질문이 포함되었다. 총 450쌍의 질문지 중 응답 거부, 무성의한 응답, 미 회수된 질문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410쌍의 질문지가 분석 자료로 사용되었다.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배경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 평균을 산출하였고, 각 측정 변인의 일반적 경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평균, 표준편차 및 왜도, 첨도를 산출하였다. 측정 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한 Cronbach's  $\alpha$  계수를 산출하였으며, 측정변인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한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 : SEM)은 AMOS 4.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모형 검증을 위한 미지수와 부합지수들의 계산은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

ML)을 사용하였다. 저학년(2학년)과 고학년(6학년)의 문제해결력 모형의 이론 변인은 부모의 양육행동, 아동의 심리적 요인, 문제해결력이었다. 각 이론 변인의 측정변인은 두 모형 모두 동일하며, 부모의 양육행동은 온정·수용, 거부·제재, 허용·방임으로 측정하였고, 아동의 심리적 요인은 우울감과 자기효능감으로 측정하였다.

### III. 결과 및 해석

본 연구에서 측정된 측정 변인의 점수가 연령별로 다른 구조를 갖는 것인지를 검증하기 위한 사전 분석으로 연령 이외에 아동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성별에 따른 차이 검증 결과, 부모의 양육행동, 우울, 자기효능감, 문제해결력은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1. 학년별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분석

학년별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는 NFI(normed fit index), TLI(Tucker-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점수를 산출하여 검증하였다. NFI는 모형의 전반적 적합도를 보여주는 지수이며, CFI는 증가하는 적합도(incremental fit) 지수, TLI는 간명적합(parsimonious fit) 지수이다. NIF(normed fit index)는 표준적합지수로서 기초모형에 대한 제안 모형의 부합도를 평가하는 지수로서 기초모형과 제안모형의 비교를 통해 모형의 개선정도를 파악하는 지수이다. NIF는 0.9보다 크면 적합한 모형으로 해석한다(김계수, 2001). TLI는 간명적합지수로서 제안모형의 적합수준, 즉 모형의 복잡성과 객관성의 차이를 비교하는 것으로서, 작은 숫자의 TLI는 수집된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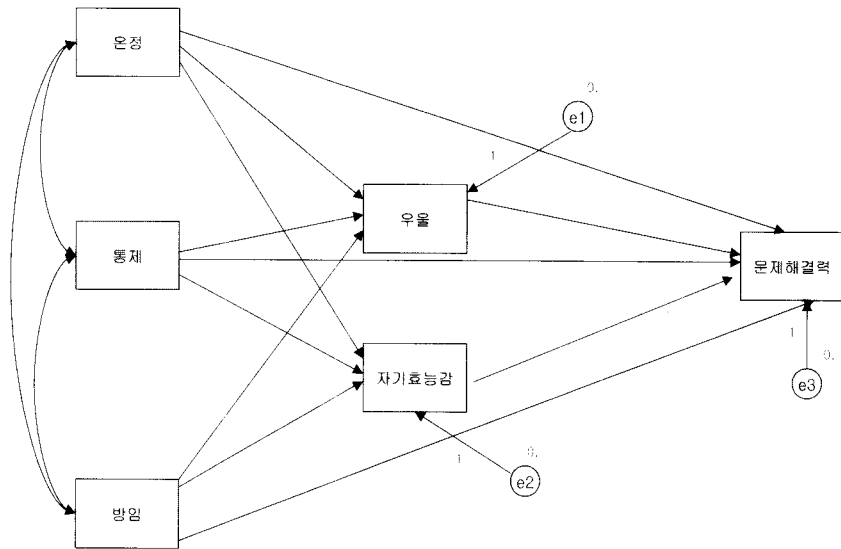
에 제시된 모형이 잘 적합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증가하는 적합도를 보여주는 CFI의 수치는 검증될 모형이 대안적으로 모델에 비해 관찰치를 재생산하는데 어느 정도나 우월한지를 나타내는 수치로서,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을 사용하는 경우 이상적인 지수로 알려져 있다(Gerbing & Anderson, 1993; Hoyle & Panter 1995).

이론적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기 위해 분석에서 수정지수값을 근거로 하여 모형을 수정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최상의 모형을 찾아내기 위한 작업으로 공분산 경로 중에서 유의했던 것들을 투입하는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이는 이론적 모형에 적합하지 않은 경로가 제시되었기 때문에 이론적 모형에 적절한 경로를 바탕으로 수정모형을 <그림 1>에 제시하였다.

이상의 수정모형을 근거로 아동의 연령에 따라 각 이론 변인들 간의 경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연령별로 모형을 각각 검증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에 대한 각각의 적합도 지수는 저학년과 고학년에서 공통적으로 NFI=.99, TLI=.69, CFI=.99이었다. 모형에 대한 수정 작업을 했음에도 TLI=.69이었다. 그러나 다른 적합도 지수들은 통계적으로 적합한 것으로 여겨져 모형에 대한 관찰치가 적합함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이론적 모형은 각 학년별로 유의미하다.

#### 2. 상관관계 분석

각 측정 변인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저학년과 고학년 집단을 나누어 변인 간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저학년 집단을 대상으로 각 측정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아동의 문제해결력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는 변인은 아동의 우울과 자기효능감으로 나타났다. 즉, 아



〈그림 1〉 아동의 문제해결력 예측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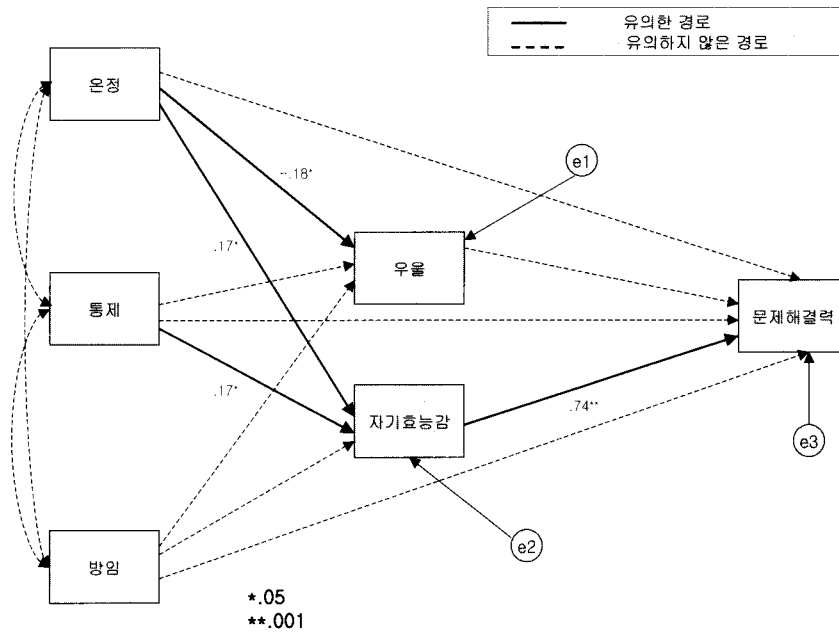
동의 우울 수준이 낮을수록( $r=-.35, p<.01$ ), 그리고 자기효능감 수준이 높을수록( $r=.74, p<.01$ ) 문제해결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의 우울은 자기효능감과 부적 상관을 보이고 있어( $r=-.47, p<.05$ ), 아동의 심리적 변인 간에 유의미한 상관을 나타내고 있다.

고학년 집단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문제해결력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고 있는 변인으로는 부모의 온정·수용적 양육 행동( $r=.24, p<.01$ ) 외에도 아동의 우울과 자기효능감이었다. 즉, 아동의 우울감 수준이 낮을수록( $r=-.33, p<.01$ ), 그리고 자기효능감 수준이 높을수록( $r=.70, p<.01$ ) 문제해결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2학년 집단에서의 상관관계 분석과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2학년 집단에서와는 달리 6학년 집단은 부모의 온정·수용적 양육 행동은 거부·제재적 양육 행동과 부적 상관( $r=-.40, p<.01$ )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자기효능감( $r=.23, p<.01$ ) 및 문제해결력( $r=.24, p<.01$ )과는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어서 부모의 온정·수용적 양육 행동은 아

동의 심리적 변인(자기효능감)과 종속변인인 문제해결력 모두에 대해서 유의미한 상관을 나타내고 있다.

### 3. 저학년 집단의 구조방정식 모형

저학년(2학년)에서 구조방정식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모형의 경로는 <그림 2>에 제시하였다. 허용·방임적 양육 행동은 아동의 심리적 변인 및 문제해결력 어느 쪽과도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온정·수용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우울감과 자기효능감에 직접적인 예언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이론적 모형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거부·제재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심리적 변인 중 자기효능감을 예언하였다. 아동의 심리적 변인 중에서 우울은 문제해결력과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아 이론적 배경과 일치하지 않는 결과를 보이는 반면, 자기효능감은 문제해결력을 예언하는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나 이론적 모형과 일치하였다.



<그림 2> 저학년의 문제해결력 모형의 경로 및 표준화 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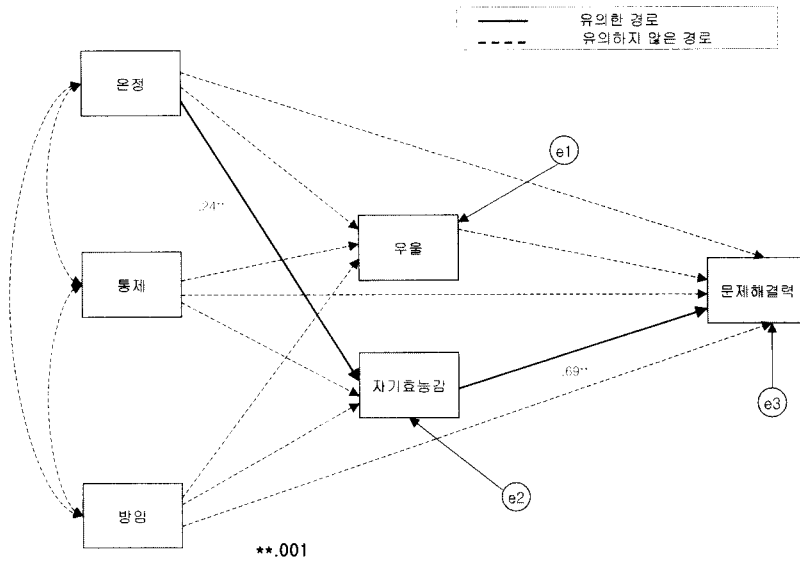
부모의 양육행동 가운데 온정·수용적 양육 행동만이 아동의 우울과 자기효능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보였으며, 거부·제재적 양육행동은 자기 효능감에만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부모의 양육행동이 온정·수용적일수록 우울 수준이 낮았으며, 자기효능감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의 양육행동이 거부·제재적일수록 아동의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2학년 아이들에게는 온정·수용적 행동과 함께 거부·제재적 행동도 자기효능감을 높이는데 긍정적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정·수용적 양육행동과 통제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며, 자기효능감은 문제해결력에 유의미한 관련이 있었다. 따라서 자기효능감은 문제해결력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보이는 예언변인으로 나타났고, 온정·수용적 양육행동과 거부·제재적 양육행동은 자기효능감을 통해 문제해결력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4. 고학년의 구조방정식 모형

고학년(6학년)의 자료를 모형에 적용한 결과는 <그림 3>에 제시되었다. 6학년 집단에서는 부모 양육 행동 중 온정·수용적 양육 행동만이 아동의 자기효능감을 직접적으로 예언하고 있으며, 거부·제재적 양육 행동이나 허용·방임적 양육 행동은 아동의 우울과 자기효능감에 전혀 유의한 관계를 보이고 있지 않는 것이 이론적 모형과의 차이점이었다. 온정·수용적 양육 행동은 아동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문제해결력과 연결되는 경로를 보이고 있었다. 이를 통해 온정·수용적 양육 행동은 아동의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며,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문제해결력이 높은 것으로 해석되었다. 따라서 부모의 온정·수용적 양육 행동은 아동의 문제해결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아동의 자기효능감을 증진시켜 궁극적으로 문제해결력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간접 요인으로 밝혀졌다.





〈그림 3〉 고학년의 문제해결력 모형의 경로 및 표준화 계수

### 5. 학년 집단 간 구조방정식모형 비교

자기효능감은 저학년(2학년)과 고학년(6학년) 집단 모두 문제해결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아동의 문제해결력에 가장 중요한 예언변인으로 나타났다.

2학년 부모의 온정·수용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우울을 낮추는 것과 관련이 있었으며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것에도 유의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학년 부모의 거부·제재적 양육행동 역시 아동의 자기효능감에 긍정적 효과를 갖는 반면, 6학년 부모의 통제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자기효능감에 전혀 유의한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저학년과 고학년 아동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양육행동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두 개의 학년 집단 모두에서 높은 자기효능감은 높은 문제해결력 수준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보이는 예언 변인으로 나타나 학년에 상관없이 자기효능감이 문제해결력을 예언하는 중요한 변인임

을 시사하고 있다.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아동의 문제해결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심리적 변인 중 우울과 자기효능감의 경로를 구조방정식 모델을 통해서 알아보고 관련 변인들 간의 상호관계 구조가 연령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령에 따른 차이를 탐색하고자 초등학교 2학년과 6학년 아동으로 구분하여 학년별 구조모형을 설정하고 각각의 모형을 검증하여 그 차이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2학년과 6학년 모두 부모의 온정·수용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자기효능감을 직접적으로 예언하였으며, 자기효능감은 문제해결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의 문제해결력이 자기효능감에 의해 가장 잘 설명될 수 있다는 선행연구들(김원경 외, 2001; 김원경·권희경·

전제아·우남희, 2001; Bong, 1997; Pajares & Miller, 1994)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특히, 본 연구의 결과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2학년 집단의 경우 부모의 거부·제재적 양육행동이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예언력을 갖는다는 점이다. 2학년의 경우 자기주도적 역할수행 능력을 발달시키는 과정에 있으며 친구관계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성 발달의 측면에서도 사회적 관계망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시기이므로 아직까지는 부모가 자녀에게 관심과 염려를 보이면서 자녀를 관리, 감독, 조절하는 것이 자기효능감을 높이는데 긍정적 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동서양 비교문화 연구에서는 동양권 부모의 통제적 양육행동이 자녀의 사회성 발달에 대한 긍정적 영향을 갖는 것을 보고하고 있다(Chao, 1994; Rohner & Pattengill, 1985). 즉, 부모의 온정·수용적 양육행동은 범문화적으로 긍정적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반면에 거부·제재적 양육행동은 미국, 유럽 문화와 동양 문화권에서 서로 다르게 이해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동양문화에서는 유교의 영향을 받아 가족구성원 사이의 위계질서와 조화가 강조되기 때문에 자녀에 대해 부모가 권위를 갖고 거부·제재적으로 양육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여겨지기 때문에 부모의 거부·제재성은 오히려 자녀에 대한 관심과 염려로 받아들여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동양권 부모의 통제적 양육 방식은 서양적 관점의 ‘권위주의적(authoritarian)’ 양육방식으로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권위가 있는(authoritative)’ 양육방식과 일맥상통 한다(장미경, 2001; 황혜정·김경희·이혜경·여주경·나유미, 2004). 그러므로 부모의 지속적인 지도와 감독은 오히려 자기효능감이나 문제해결력과 같은 아동의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갖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6학년 집단에서는 부모의 거부·제재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자기효능감과 유의한 관련을 보이고 있지 않는 것과 비교하여 2학년 집단 아동의 부모의 통제적 양육행동이 자기효능감을 높이는데 긍정적 효과를 갖는 결과는 아동 발달적 측면에서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고학년이 될수록 자기조절행동능력을 비롯한 자율성이 발달되고, 또래관계가 확장되어(Gifford-Smith & Brownell, 2003; Kail, 2003) 부모의 통제와 개입에 따른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된다(Berk, 2002). 따라서 자녀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 주면서 동시에 자녀에 대한 통제력을 최소화하는 부모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부모의 온정·수용적 양육행동은 2학년과 6학년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아동의 자기효능감을 높이는데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결과를 통해 부모의 일관된 온정·수용적 양육 행동은 아동의 발달에 매우 중요한 예언 변인임을 시사한다. 부모의 온정·수용적 양육 행동은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해결력 뿐만 아니라 자아존중감(Coopersmith, 1967; Scott, Scott, & McCabe, 1991), 자아개념 형성(Markstrom-Adams, 1992), 학업성취도 및 지적 발달(Pettit, Bates, & Dodge, 1997), 성역할 정체감(Bem, 1989), 친사회성 발달(Brody & Shaffer, 1982; Hoffman, 1970; Kochanska, 1997) 등 아동의 발달 영역 전반에 걸쳐 긍정적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밝혀져, 긍정적 발달을 위한 온정·수용적인 부모 양육 행동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고려한 변인 외에도 위와 같은 다양한 문제해결력 관련 변인을 포함한 보다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후속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부모의 온정·수용적 양육행동은 저학년과 고학년 모두에게서 매우 효과적인 문제해결력 예언 변인이었던 반면, 거부·

제재적 양육행동은 저학년에서는 긍정적 효과를 보였으나 고학년에서는 문제해결력에 대한 설명력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는 부모의 양육 행동은 아동의 연령에 따라 효율적 변화가 있어야 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부모의 양육 행동이 문제해결력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에 대해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령층을 포함한 연구를 통해 자녀의 문제해결력에 긍정적 영향을 갖는 부모의 양육 행동에 대한 발달적 경향을 파악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밝혀진 결과는 부모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문제해결력 증진을 위해 매우 중요한 변인임을 밝히고 있다. 아동의 문제해결력을 위해서는 아동 자체의 변인도 중요하지만 발달의 생태학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부모양육행동도 발달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부모의 양육 행동이 문제해결에 미치는 효과를 보다 심도 있게 검증하기 위한 지속적 연구가 필요할 것이며, 특히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 행동의 차이에 따른 영향력의 차이 검증을 위한 후속연구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김계수(2001). **AMOS 구조방정식 모형분석**. 서울 : (주)데이타솔루션.
- 김원경 · 권희경 · 전제아(2001). 부모 양육 행동 및 아동의 심리적 제반 변인이 문제해결력에 미치는 영향 : 경로분석모형. **한국심리학회지 : 발달**, 14(3), 87-105.
- 김원경 · 권희경 · 전제아 · 우남희(2001). 아동의 문제해결력 관련 변인 연구. **한국아동학회지**, 22(3), 63-73.
- 어주경(1998). 저소득층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이 아동의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순목(1990). **공변량 구조분석**. 서울 : 성원사.
- 이은해 · 조성연(1987). 아동의 문제해결력과 창의성 및 성격 특성 간의 관계. **연세논총**, 23, 333-349.
- 장미경(2001). 사회적 지지망에 대한 지각과 회상된 부모의 자녀양육방식 간의 관계 : 비교문화연구. **한국심리학회지 : 발달**, 14(3), 133-151.
- 황혜정 · 김경희 · 이해경 · 어주경 · 나유미(2003). **아동과 환경**. 서울 : 학지사.
- Alloy, L. B., Abramson, L. Y., Tashman, N. A., Berrebbi, D. S., Hogan, M. E., Whitehouse, W. G., Crossfield, A. G., & Morocco, A.(2001). Developmental origins of cognitive vulnerability to depression : Parenting, cognitive, and inferential feedback styles of the parents of individuals at high and low cognitive risk for depression.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25(4), 397-423.
- Bem, S. L.(1989). Genital knowledge and gender constancy in preschool children. *Child Development*, 60, 649-662.
- Berg, C. A.(1989). Knowledge of strategies for dealing with everyday problems from childhood through adolesc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25, 607-618.
- Berk, L. E.(2002). *Infants and children : Prenatal through middle childhood*(4th ed.). Boston, MA : Allyn & Bacon.
- Bong, M.(1997). Generality of academic self-efficacy judgements : Evidence of hierarchical relation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9, 696-709.
- Brody, G. H., & Shaffer, D. R.(1982). Contributions of parents and peers to children's moral socialization. *Developmental Review*, 2, 31-75.
- Cary, M., & Carlson, R. A.(2001). Distributing working memory resources during problem solving.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27, 836-848.
- Chao, R. K.(1994). Beyond parental control and authoritarian parenting style : Understanding Chinese parenting through the cultural notion of training. *Child Development*, 65, 1111-1119.

- Chen, Z.(1999). Schema induction in children's analogical problem solving.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1, 703-715.
- Coleman, P. K.(2003). Perceptions of parent-child attachment, social self-efficacy, and peer relationships in middle childhood. *Infant & Child Development*, 12(4), 351-368.
- Coopersmith, S.(1967).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New York : W. H. Freeman.
- Elliot, T. R., Sherwin, E., Harkibns, S. W., & Marmarosh, C.(1995). Self-appraised problem-solving ability, affective states, and psychological distres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2, 105-115.
- Erwin, P. G., Purves, D. G., & Johannes, C. K.(2005). Involvement and outcomes in short-term interpersonal cognitive problem solving groups. *Counseling Psychology Quarterly*, 18(1), 41-46.
- Fawcett, L. M., & Garton, A. F.(2005). The effect of peer collaboration on children's problem-solving ability.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5(2), 157-169.
- Fargot, B. I., & Gauvain, M.(1997). Mother-child problem solving continuity through the early childhood years. *Developmental Psychology*, 33, 480-488.
- Feinberg, M. E., Hetherington, E. M., Howe, G. W., & Reiss, D.(2000). Relationship between perceptual differences of parenting and adolescent antisocial behavior and depressive symptom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4(4), 531-555.
- Finkenauer, C., Engels, R. C. M. E., & Baumeister, R. F.(2005). Parenting behaviour and adolescent behavioral and emotional problems : The role of self-control.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9(1), 58-69.
- Gerbing, D. W., & Anderson, J. C.(1993). Monte Carlo evaluations of goodness-of-fit indices for structural equation models. In K. A. Bollen, & J. S. Long (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Newbury Park : Sage.
- Gifford-Smith, M. E., & Browness, C. A.(2003). Childhood peer relationships : Social acceptance, friendships, and peer networks.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41(4), 235-284.
- Gredlein, J. M., & Bjorklund, D. F.(2005). Sex differences in young children's use of tools in a problem-solving task. *Human Nature*, 16(2), 211-232.
- Heppner, P. P., & Petersen, C. H.(1982). The development and implications of a personal Problem-Solving Inventor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9(1), 66-75.
- Hoffman, M. L.(1970). Moral development. In P. H. Mussen(Ed.). *Carmichael's manual of child psychology*(Vol. 2). New York : Wiley.
- Hoyle, R. H., & Panter, A. T.(1995). Writing about structural equation models. In R. H. Holye(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 Concepts, issues, and applications*. Thousand Oaks : Sage.
- Ingoldsby, B., Schvaneveldt, P., Supple, A., & Bush, K.(2003).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behaviors and adolescent achievement and self-efficacy in Chile and Ecuador. *Marriage & Family Review*, 35(3-4), 139-159.
- Irvin, A. B, Biglan, A., Smolkowski, K., Metzler, C. W., & Ary, D. V.(1999). The effectiveness of a parenting skills program for parents of middle and students in small communities. *Journal of Consulting & Clinical Psychology*, 67, 811-825.
- Kail, R. V.(2003). *Children and their development*, (3rd ed.). Upper Saddle River, NJ : Prentice-Hall.
- Kochanska, G.(1997). Mutually responsive orientation between mothers and their young children : Implications for early socialization. *Child Development*, 68, 94-112.
- Markstrom-Adams, C.(1992). A consideration of intervening factors in adolescent identity formation. In G. R. Adams, T. P. Bullotta, & R. Montemayer (Eds.). *Adolescent identity formation*(Advances in

- Adolescent Development, Vol. 4). Newbury Park, CA : Sage.
- Miller, S. R., Murry, V. M., & Brody, G. H.(2005). Parents' problem solving with preadolescents and its association with social withdrawal at school : Considering parents' stress and child gender. *Fathering : A Journal of Theory, Research, & Practice about Men as Fathers*, 3(2), 147-163.
- Moss, E., Parent, S., Gosselin, C., & Dumont, M.(1993). Attachment and the development of metacognitive and collaborative strategies. *International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19, 555-571.
- Moss, E., Gosselin, C., Parent, S., Rousseau, D., & Dumont, M.(1997). Attachment and joint problem-solving experiences during the preschool period. *Social Development*, 6, 1-17.
- Pajares, F., & Miller, M. D.(1994). Role of self-efficacy and self-concept beliefs in mathematical problem-solving : A path analysi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6, 193-203.
- Petti, G. S., Bates, J. E., & Dodge, K. A.(1997). Supportive parenting, ecological context, and children's adjustment : A seven-year longitudinal study. *Child Development*, 68, 908-923.
- Radloff, L. S.(1977). The CES-D Scale : 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1, 385-401.
- Rogoff, B.(1990). *Apprenticeship in thinking*.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 Rohner, R. P., & Pettengill, S. M.(1985). Perceived parental acceptance-rejection and parental control among Korean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56, 524-528.
- Rueter, M. A., & Conger, R. D.(1998). Reciprocal influences between parenting and adolescent problem-solving behavior. *Developmental Psychology*, 34, 1470-1482.
- Scott, W. A., Scott, R., & McCabe, M.(1991). Family relationships and children's personality : A cross-cultural, cross-source comparison.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0, 1-20.
- Shaffer, D. R.(2000). *Social & personality development* (4th ed.). Belmont, CA : Wadsworth/Thomson Learning.
- Sherer, M., Maddux, J. E., Mercandante, B., Prentice-Dunn, S., Jacobs, B., & Rogers, R. W.(1982). The self-efficacy scale : Construction and validation. *Psychological Reports*, 51, 663-671.
- van den Boom, D. C.(1995). Do first-year intervention effects endure? Follow-up during toddlerhood of a sample of Dutch irritable infants. *Child Development*, 66, 1798-1816.

2006년 2월 28일 투고 : 2006년 5월 4일 채택